

영암교육청, '찾아가는 우리동네 환경 전문직업인' 프로그램 운영

곤충박물관 연계...진로체험 프로그램 발굴해 '환경과 기후, 곤충카나페 만들기' 수업 진행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애) 진로체험지원센터는 9일 용당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우리동네 환경 전문직업인"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용당초를 시작으로 삼호중앙초, 대불초, 독천초, 장천초 등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영암교육지원청 역점사업인 '미래를 준비하는 체험형 생태환경교육'의 일환으로 영암곤충박물관과 연계하여 기획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이다. '환경과 기후, 곤충카나페 만들기' 수업을 진행한 영암곤충박물관 김여송 부관장은 "지속가능한 환경 문제에 아이들이 쉽고 재밌게 접근하여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수업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수업 소감으로 용당초 김OO 학생은 "벌레

를 먹으면 안되는 줄 알았는데 먹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고 직접 먹어보니 생각보다 맛있고 고소했다. 처음에는 놀랍고 조금 무섭기까지 했는데 곤충식량에 대해 자세히 배우고보니 곤충에는 단백질이 많고 소나 돼지보다 환경 보호에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구나 미래 식량으로 쓰일 여러 종류의 식용곤충에 대해 배우고 밀웜카나페를 만들어 먹어보니 미래식량과 환경공부가 더욱 재밌었다."고 말했다.

함께 수업에 참여했던 용당초 진로담당 이OO교사는 "교사인 저조차도 생소하고 낯선 음식인 '곤충 식량', 새로운 직업인에 대해서 뻔하지 않고 즐겁게 풀어내어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실제 곤충 식량으로 쓰이고 있는 곤충을 눈으로 보고 만져

보며 처음엔 거부감이 있던 아이들도 수업 막바지에는 맛있다고 감사 선생님께서 나눠주시는 밀웜을 다 먹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을 관찰하며 아이들이 재밌게 환경보호에 한 걸음 다가가고 새로운 직업에 대해 배울 수 있어 저도 행복했습니다."라며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김성애 영암교육장은 "지속가능한 환경·생태교육이야말로 미래를 대비하는 실천적 교육이며 이것은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형태로 체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학교 밖 활동이 제한적인 학생들에게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위해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협력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일부라도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환경·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목포공공도서관 "인형극으로 환경의 소중함 배워요" '이런 개구리는 처음이야' 인형극 공연 운영

목포공공도서관(관장 황성규)은 매월 두 번째 토요일마다 공연으로 만나는 동화나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공연으로 만나는 동화나라는 그림책과 연계된 스토리텔링 인형극 공연으로 유아들의 독서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고 체험과 놀이 중심의 독서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동화책 '이런 개구리는 처음이야'를 재각색한 인형극으로 10일 토요일 14시부터 1시간동안 진행하였다.

유아, 초등학생 및 학부모 5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운영하였고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

공연을 아이와 함께 관람한 학부모는 "아이

와 함께 환경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우리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코로나 때문에 답답해하던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즐거웠고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다음 5월에는 '햇님달님' 인형극 공연이 운영될 예정이다. 그리고 4월 문화가 있는 날인 28일 15시에 그림책 작가와 책놀이 프로그램 '이영경 작가의 물랑이와 돌랑이의 너티너티 숲속 여행'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목포=박정수기자

순천대 학생상담센터-순천시청년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 정신건강 통합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 학생상담센터는 최근 순천시청년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마인드링크)와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관리 체계 구축 및 통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순천대 재학생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건강 위기 학생의 통합지원을 위해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 ▲학생 정신건강증진 및 청년 정신건강조기중재사업 운영 ▲정신건강 상담, 사례관리, 자문 활동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종태 순천시청년정신

건강조기중재센터장은 "지역 대표 국립대와 유익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겪는 정신 위기의 유형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순천대 임경희 학생상담센터장은 "코로나 사태와 함께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정서 위기에 노출된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학교 밖과 안의 구분이 없이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순천대학교 학생들을 포함하여 지역 내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초석이 되



기를 기대하며, 향후 정신건강 이슈와 관련하여 지역 사회의 공익실현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하였다.

순천대학교 학생상담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재학생뿐 아니라 지역사회 청년들의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개입,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순천=김승호기자

광주시교육청, '찾아가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 호응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 위한 현장 맞춤형 교육 운영

광주시교육청이 3~4월 관내 희망학교 10개교의 학교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교육'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민 주도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원년 출범과 함께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학교 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은 ▲학교급식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분리수거 구분 방법 ▲잔반 발생량을 줄이는 방법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10% 줄이기 등을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학교 구성원들이 잔반 발생량을 줄이는 방법을 토의하는 등 현장에서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학교급식 관계자와 학생들이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학교 현장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시교육청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량 10% 절감을 목표로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선순환적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윤희기자

